

해상풍력 전문기업 100억 투자 유치

국립군산대, 명일책임해양 등과 협약…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 일환

새만금 ECO-UP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에코너지 인재 양성 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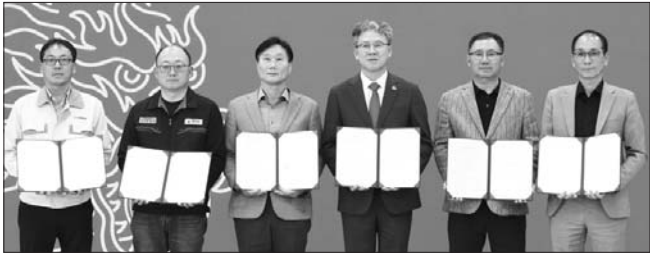
지역 해양 전문기업의 국립군산대학교 투자와 함께 대학도 기술 이전에 나서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지난 25일 해상풍력 전문기업 명일책임해양(주)와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보 4월 25일자 7면〉

지난 1989년 창업한 명일책임해양(주)은 군산에 기반을 둔 특수선박 건조 및 해양 장비 등 해양 구조물 전문 제작 기업으로 지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45억 8,000만 원으로 매출 증가는 46.6%에 달한다. 특히 책임 바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인 액엔피니언 타입 잭킹시스템을 개발해 미국 선급협회(ABS)의 PDA(Product Design Assessment)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투자로 향후 10년간 100억을 투자해 국립군산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발전기 지지 구조물 설치를 위한 선박 장치 등의 독자적 기술개발에 나서고 부품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5일 해상풍력 전문기업 명일책임해양(주) 등과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명일책임해양(주) 김문웅 대표는 “우수한 인력, 높은 기술력,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책임 바지선 시장의 선두기업으로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군산대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 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 글로벌 해상풍력 산학협력에 위해 (주)변영중공업, (주)실씨엔에스, (주)티에스윈드, (주)휴먼컴퍼지트 등과 기술 이전 등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협력 △국가 연구소 사업(NRL2.0)에 대한 상호 협력 △말도 해상풍력 실증단지 활용 협력 △풍력발전을 위한 학생 현장실습 등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 등 상호 협조 △지역 발전 및 상생 협력 방안 도모 등이 다.

(주)변영중공업은 협약을 통해 국립군산대 연구팀에서 개발한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세우기 위한 지지대의 진공 흡착식 신기술인 ‘펜타포드 석션버켓지지 구조물 및 설치 방법’과 ‘해상풍력 발전기용 지지 구조물’ 등

의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다에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비용,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군산대는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기업 참여형 해상풍력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군산대는 글로벌(Glocal)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만금 ECO-UP’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다.

‘새만금 ECO-UP’ 프로젝트는 지역 특화 에코너지(Energy CONvergence syNERGY) 캠퍼스를 뜻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대학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군산대는 글로벌대학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교육(Education-UP), 지역 협력(Collaboration-UP), 국제화(Oversea-UP)라는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에코너지 인재 500명 양성 △에코너지 지역 정주 인재 1,000명 육성 △에코너지 관련 기업 200개 육성 △에코너지 분야 창업 100개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치명률 100% ‘프리온질환’ 치료 길 열다

난치성 신경퇴행성 질환에 줄기세포 등 활용
전북대 정병훈 교수팀 연구 성과, 국제 학술지 게재



치로제가 전혀 없어 치명률이 100%인 프리온질환(prion diseases)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혁신적 연구가 나와 국제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학교 정병훈 교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사진)팀은 최근 치명적인 신경퇴행성 프리온질환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PrP^{Sc})의 축적이 감소되고, 질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했다.

프리온질환은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PrP^{Sc})이 뇌에 축적돼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간의 크로이츠펔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과 소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치료가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팀은 프리온 질환 마우스 모델에 글림파틱(glymphatic) 시스템 활성 약물과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AdMSCs)를 병행 투여하는 방식의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

과, 프리온 단백질의 축적이 현저히 감소하고 질환 발생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연구 성과는 추후 프리온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탁월성을 인정받아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의 국제적 권위자인 ‘Molecular Neurodegeneration’(IF: 15.1)에 최근 게재됐다.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도 소개되는 등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정병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치료제가 전무한 프리온질환에 대해 글림파틱 시스템 활성 약물과 줄기세포 기반 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치료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의 응용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대학중점 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전북대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와 Zoonosis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도 연구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교육지원청-전북대 인문대학
지역 인문도시 지원 협약 체결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지난 24일,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과 함께 무주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인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무주의 인문자산을 바탕으로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문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추진되었다.

상 기관은 앞으로 무주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강좌 및 체험형 인문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용 중심의 인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과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2025년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연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24일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담당 교사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50명의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연수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사전 안전점검 및 위기 대응 매뉴얼 △우수 운영 사례 공유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 강사(교사 유정남)와 교육청 담당자(장학사 국정현)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생 안전과 체험활동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용훈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통합 원광대 출범 앞둔 미래형 교육모델 설계

원광대, 광역계열 무학과 관련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과정·학사제도 혁신 논의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광역계열 무학과 관련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3일과 24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무처 교육혁신원 교육혁신과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2026학년도 통합원광대학교 출범을 앞두고 학사제도 혁신과 무학과 광역계열 인착을 위한 미래형 교육모델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무학과 광역모집과 관련된 실질적인 운영 전략과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다양한 교민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무학과 운영 관련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태 총장의 대학 통합 및 학사제도 혁신 방향 설명으로 문을 열었으며, 조준호 교육혁신원장이 “2026 통합 원광대 교육과정 설계 특강”을 주제로 무학과 광역계열 교육과정 모델을 설명하고,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작성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기조특강은 황영아 한성미래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학생자율선택형 전공트랙제 운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무학과 광역모집 성공을 위한 교수자의 역할과 학생지원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미래 수업 설계 지원 위해 현장 의견 수렴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교원 에듀테크 직무연수 강좌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 수업 설계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2025년 교원 에듀테크 직무연수 강좌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실천적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수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모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 수업 과정안 등을 작성해 오는 5월 9일까지 공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강좌 주제는 △AI 및 AIDT(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스마트기기 및



원광대학교는 광역계열 무학과 관련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후 그룹별 자유토론에서는 △계열 내 전공별 정밀 설정 △계열 간 이동 가능 여부 △전공탐색 학기 커리큘럼 개선 방안 △무학과 광역계열 학생지원체계 △화문 간 융합 촉진(다학제적 접근)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서로 다른 전공의 교원들이 소통하면서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더욱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시간과 더불어 무학과 광역모집에 따른 교직원 역할 변화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그간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도 했다.

박성태 총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모델을 설정하고, 무학과 광역모집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을 위한 교수진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이번 워크숍이 기획됐다”며 “산업계와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직원 스스로 다학제적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융합적이면서 유연한 교육과정 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수들이 변화하는 학사제도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충분한 전공탐색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지역형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 전주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형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대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재료 탐험 및 미각, 영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학생은 대상으로는 개인 체질 개선과 영양 교육을 위한 교육키트를 제작하여 교육한다. 영양교육 개발 및 보급한다. 나이가 고등학생에게는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급식 및 외식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미래식품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교육공동체 자발적 참여… 4416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동참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갖고, 성금 4,416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이다.

기탁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식은 성금 전달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가족이 함께



모은 작은 정성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전북교육청, 공간혁신 추진학교 담당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 “2025년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추진학교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올해 56개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을 시작으로 5년간 55개교씩 276개 학교도서관을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수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조성 선정학교 담당자들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사를 위한 평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면 문제력 키우기’ △학생 스스로 과정을 해결하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혁신 이해’ 등이었다.

실제 공간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 활용, 토론·협업, 커뮤니티 공간 등 학교급·학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가졌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구성 방안, 학생 참여 중심의 국내·외 공간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해 공간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김재훈 기자

2025년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기)은 지난 2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2025년도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 상임고문 1명 등 임원 6명과



대의원 14명이 선출됐으며, 임원 및 대의원은 향후 학부모회협의회회의의 적극적인 운영과 상호 소통 및 협력을 다짐했다. /김재훈 기자